200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건축의 내재적인 조성을 알고 체험함

메시지 10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의해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람

성경: 삼하 7:12-14상, 사 55:1-3, 시 110:3, 잠 4:18, 계 2:4-5, 7

I. 다윗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 되셨다—삼하 7:12-14상, 사 55:1-3, 행 13:33-35.

A.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은 영원한 언약이며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사 55:3, 42:6, 고후 3:6.

B.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흡수하며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동화시켜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라심으로 우리가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전 1:9, 마 16:18, 엡 1:22-23, 골 2:19.

C.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들을 갖는 것을 허락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목적에 신실하시다. 우리의 평강, 안전, 건강, 소유물 등이 우리에게 우상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생명수의 원천으로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시는데 신실하시다—렘 2:13, 사 55:7, 57:20 1번 각주, 요 4:13-14.

D.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영적인 소화와 동화시킴의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발생하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로 공급하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신다.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발전이 건축이다—고전 3:6-12상, 10:3-4, 고후 3:16-18, 엡 2:21-22, 4:15-16.

II.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관계를 가짐에 의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란다—아 1:1-4.

A.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누리고 그분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계 2:4-5, 7, 고후 11:2-3.

B.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관심하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갖는다면 우리는 지혜, 시력, 통찰력, 사물에 관한 내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출 33:11상, 14, 고후 2:10.

C. 우리의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관한 계시를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계시를 가지며 그들의 헌신의 광채 안에서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마 26:1-13, 시 110:3, 창 12:7-8.

D.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죽음에 관한 계시를 받은 후 마리아는 그분이 죽기 전에 그분께 기름을 바를 기회를 기다렸다—눅 10:38-42, 마 26:1-2, 12, 비교 16:21, 17:22-23, 20:18-19.

III.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신선하며 낡지 않도록 지킴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란다—시 110:3, 레 6:12-13.

A.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하는 생명이 있으며 그분의 강권하는 사랑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분의 노예들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출 21:1-6, 고후 5:14, 롬 1:1, 비교 갈 6:17.

B. 우리에게는 노예의 영, 노예의 사랑, 노예의 순종, 노예의 생명이 필요하다. 기꺼이 노예가 되고자하는 이들만이 영원히 교회 생활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5:13-16, 비교 빌 2:17, 삿 9:12-13.

C. 노예는 자신의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상전의 말에 따라 행하는 위치를 취해야 하며 그의 상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출 21:6, 요 5:30, 시 40:6, 사 50:4-5.

IV. 우리는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냄에 의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란다—시 110:3.

A. 우리의 중대한 필요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분별될 수 있도록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를 가져오며 분열, 세상적임, 야심, 스스로 높임, 의견, 관념의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구한다—요 17:17, 21, 23, 엡 6:17-18.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해를 따라서 부흥되고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하며 주님의 궁극적이며 최신의 움직이심을 위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비우고, 열고, 신선하고, 새롭고, 살아있고, 젊도록 지켜야 한다—잠 4:18, 겔 36:26-27, 롬 6:4, 7:6, 비교 시 22편 제목.

C. 우리는 사적이며 비밀하게 아버지와 있음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갖기 위해서 높은 곳, '높은 산' 위에 올라가고, 군중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마 14:22-23, 막 1:35, 눅 5:16, 6:12).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완전히 열 수 있으며 그분의 임재의 비추는 빛 안에서 우리의 죄들과 연약함과 실수와 장애물과 어려움을 그분께 자백하여 그분의 용서하심과 씻으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와 그분 사이에 아무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비춤으로 가득할 것이다(요일 1:5, 7, 9, 눅 11:33-36).

D.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개인적인 시간에 우리는 그분께 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마 6:6, 요 6:57.

E.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인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대화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배워야 한다.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성한 행정을 수행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분배하심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된다—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며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창 18:22-33, 롬 8:26-27, 출 30:7, 계 8:3-4.

© 2006 Living Stream Ministry